



세계질 푸르른 양산지와 함께...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화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2010년 광저우에서 만나요”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64	88	63
2	한국	58	53	82
3	일본	50	71	77
4	카자흐스탄	23	19	43
5	태국	13	15	26
6	이란	11	15	21
7	우즈베키스탄	11	14	14
8	인도	10	18	26
9	대만	9	10	27
10	말레이시아	8	17	17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아시안 게임이 16일 오전 2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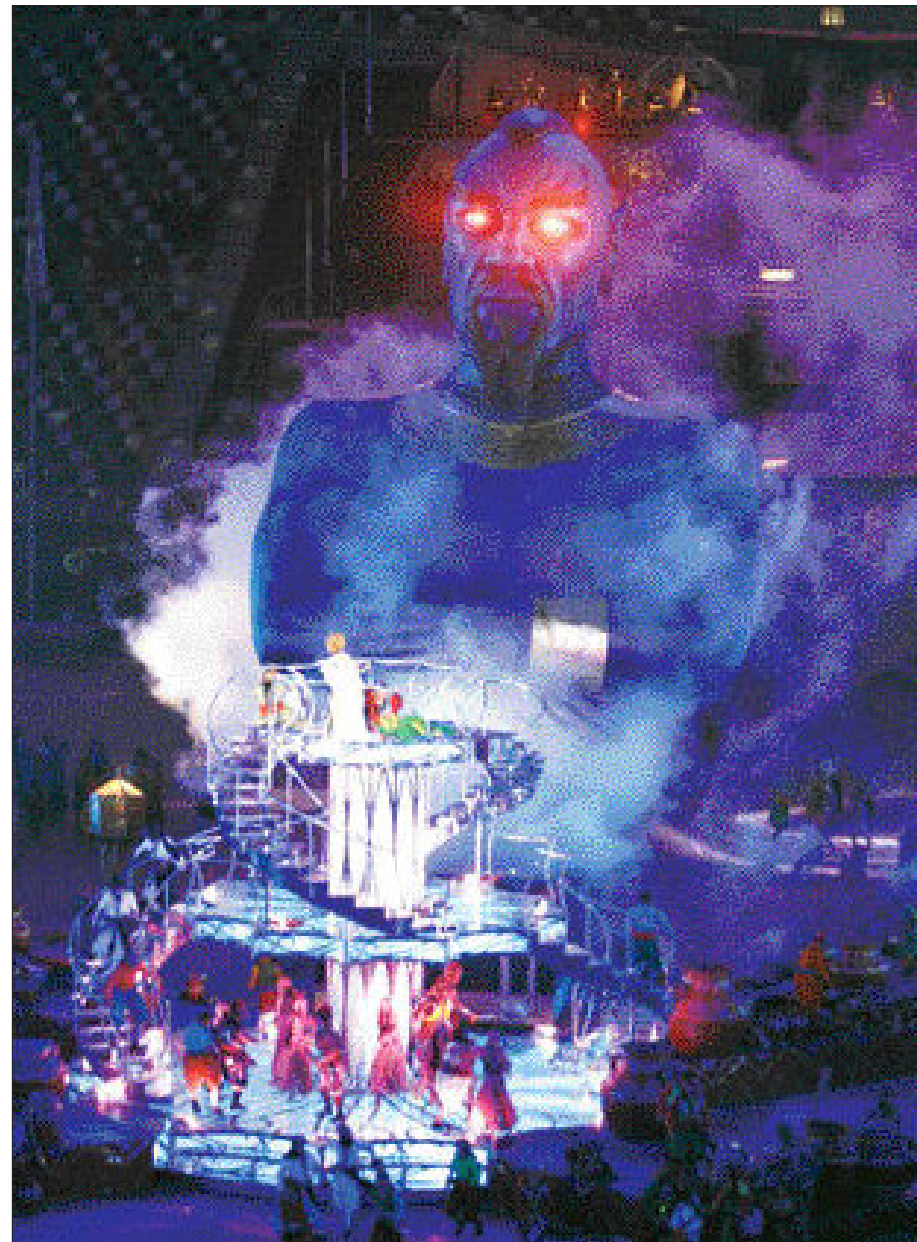
##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오늘 새벽 폐회식

### 한국 금 58·은 53·동 82 ... 3년 연속 2위

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 태극전사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최고였던 1998년 방콕대회와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추가한 한국은 금 58개, 은 53개, 동 82개로 일본(금 50, 은 71, 동 77)을 제치고 종합 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중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 164개, 은 88개, 동 63개로 종합 1위에 올랐다. 북한은 금 6, 은 9, 동 16개로 16위에 랭크됐다. 일본에 금메달 2개 차로 근소하게 앞섰던 한국은 14일 밤 벨로드롬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격차를 벌이기 시작했다. 사이클 트랙 매디슨(200km)에 출전한 장선재-박성백 듀오는 포인트레이스 합계 35

점으로 카자흐스탄(21점)을 여유있게 따돌리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167cm의 ‘단신 라이더’ 강동진이 경륜 결승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일궈냈다. 특히 장산재는 4km 개인추발과 단체추발에 이어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선수단 중 수영의 박태환에 이어 두번째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러나 확실한 금메달로 예상했던 이형택은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에서 감기 몸살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태국의 다니이 우돔초에게 0-2(5-7 3-6)로 제 은메달에 머물렀다. 15일엔 ‘태극검객’들이 남녀 단체 정상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힘을 보탤다. 남현희-서미정-정길옥-전희숙으로 구성된 여자 플뢰레 단체는 결승에서 중국을 45-37로 제압했고, 김승구-정진선-김원진-박

상선이 나선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역시 중국을 35-33으로 꺾고 우승했다. 또 레슬링 자유형의 간판 백진국은 66kg급 결승에서 일본의 고지마 다카후미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일본과의 메달 레이스에 더욱 단단한 디딤돌을 놓았다. 1.2라운드에서 연속 태클로 상대를 제압한 백진국은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오랜 ‘효자 종목’ 남자 하키도 결승에서 중국을 3-1로 물리치고 2연패를 이룩했다. 이날의 대미는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가 장식했다. 이란과 카타르를 연파하고 결승에 오른 남자배구는 신진식과 후인정, 이경수의 고공강타로 속적 중국을 3-1(25-18 22-25 25-18 25-16)로 따돌리고 아시아 정상에 올라 한국선수단에 58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반면 필 베어백 감독의 남자축구는 이란과 3~4위 결정전에서 연장 8분 아델 코라흐 카즈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동메달조차 얻지 못했다. 한편 제 16회 아시안게임은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막내리는 ‘천일야화’

16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천일야화’를 테마로 한 제15회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알리딘과 마법 램프’의 정령인 지니를 형상화 모형물이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배구 ‘금빛 환호’

15일 새벽 카타르 도하 알 리안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배구·펜싱단체 만리장성 격파

## ‘프로 체면’ 살리고 귀중한 금 추가



‘막내 프로 스포츠’ 배구가 그래도 체면을 세워줬다.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중 가장 늦게 출범한 남자배구는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축구, 농구가 줄줄이 나가 떨어진 뒤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자존심을 지켰다. 작년 2월 원년 V-리그 출범한 프로배구는 그 두 시즌을 치른 걸음마 단계지만 투혼과 집중력으로 무장한 태극 스카이크러들이 중동의 두 난적 이란, 카타르를 연파하고 15일 결승에서 만리장성 중국을 세트 스코어 3-1(25-18, 22-25, 25-18, 25-16)로 완파했다. 출범 25년의 프로야구, 24년째인 축구, 열 돌을 넘긴 농구에 비한다면 아직 ‘아마추어 티’를 벗지 못한 게 오히려 투지의 자극제가 된 셈이다. 남자배구 선전의 중심엔 배구계 ‘미다스의 손’ 김호철(51) 감독이 있었다. 올해 한국배구의 침체는 심각했다. 지난 7월 8년만에 세계의 벽에 제도전환 월드컵에선 이집트에 단 1승만 거뒀을 뿐

유럽·북미·아프리카 강호에 잇따라 무너져 1승 4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시안게임 출전 직전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같은 전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쓰라림을 맛봤다. 일각에선 처음 대표팀에 접목한 김호철식 배구가 이탈리아와 국내 프로무대에선 통했는지 몰라도 국가대표전에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김 감독은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고, 철저히 데이터를 신봉했다. 이탈리아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삼성화재의 9년 아성을 무너뜨렸듯이 이번에도 딱 세 번의 결전을 위해 술한 자료를 모았다. 대회기간에도 선수촌에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다 놓고 선수들과 함께 적을 해부했다. 김호철 감독은 이날 중국과 결승에서 선수교체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다. 심판 관정이 애매해도 항의하지 않았다. 잠시 조직력이 흔들린 2세트를 빼면 타이아웃도 잘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여 플뢰레·남 에페 단체전 각각 우승



한국 펜싱 남녀 대표팀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중국의 벽을 넘어 동반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현희(서울시청)-서미정-정길옥(이상 강원도청)-전희숙(한국체대)으로 구성된 한국은 15일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중국을 45-3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이로써 펜싱 단체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동시에 지난 13일과 14일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4번씩이나 패했던 수모도 가장 먼저 설욕했다. 또 여자 펜싱의 간판 남현희와 서미정은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플뢰레 단체전을 2연패 했고, 특히 지난 12일 플뢰레 개인전에서 우승한 남현희는 펜싱 대표팀 가운데 유일한 대회 2관왕이 됐다.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을 45-2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남현희와 서미정, 정길옥을 번갈아 내보내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축구 ‘노메달 망신’

## 베어백호, 이란에도 0-1 패 4위 그쳐



아시안게임 20년 만의 우승 도전에 실패한 한국 남자축구가 이란에도 패하며 노메달로 대회를 마감하는 수모를 당했다. 필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15일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끝난 2006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란과 연장 접전 끝에 연장 후반 8분 아델 코라흐카즈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패했다.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불의의 일격(0-1 패)을 당하며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의 아시안게임 우승 꿈을 접은 한국은 이로써 동메달조차 얻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르려 했다. 베어백 감독은 김동현(부인 카잔)을 최전방 윙클, 최성국과 이종민(이상 울산)을 좌우 날개에 세운 스트림 공격라인으로 골 사냥에 나섰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백지훈(수원),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창은(대구)과 이호(제니트)가 맡았다. 포백라인은 왼쪽부터 김치근(서울), 정인환(전북), 김진규(이와타), 조원희

(수원)로 구성했고, 골문은 변함없이 김영광(전남)이 지켰다. 이라크와 준결승전처럼 이날도 경기는 시종 한국이 지배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답답증만 쌓인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이 전반 다섯 차례의 슈팅을 때리는 동안 이란은 단 한 번의 슈트도 없었다. 후반들어 베어백 감독은 지친 기색의 최성국 대신 염기훈(전북)을, 후반 11분엔 오창은을 빼고 공격수 이천수(울산)를 투입한 뒤 몇 차례 결정적 찬스를 맞았으나 역시 골문은 열지 못했고 연장 승부로 이어졌다. 연장 전반까지도 득점 없이 마친 뒤 베어백 감독은 백지훈 대신 ‘도하의 영웅’ 박주영(서울)을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를 띄웠지만 경기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반격에 몇 차례 위기를 맞더니 연장 후반 8분 코라흐카즈에게 이라크 왼쪽에서 오른발 중거리포를 허용, 결승골을 내주고 허망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6일(토)
  - ▲NBA(필라델피아-넬러스)(10:00·MBC ESPN)
  - ▲프로농구(전라랜드-동부)(14:50·Xports), (LG-SK)(14:50·SBS스포츠)
  - ▲WBA 여자 플라이급 김하나 1차 방어전(15:00·KBSN SPORTS)
- 17일(일)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블랙번)(00:00·MBC ESPN)
  -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피오렌티나-AC밀란)(04:30·KBSN SPORTS)
- 18일(월)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웨스트햄-맨체스터Utd)(00:00·MBC ESPN)
- ▲PGA 타깃 월드 챔피언십 3R(05:00·SBS스포츠)
- ▲NFL(아틀랜트-달라스)(09:50·SBS스포츠)
- ▲WBC페더급 세계챔피언 타이틀매치(지인진-로페스)(13:30·MBC ESPN)
- ▲ITTF 탁구 그랜드 파이널 남녀복식결승(14:50·SBS스포츠)
- ▲프로농구(SK-KTF)(14:50·Xports), (모비스-삼성)(16:50·SBS스포츠), (KT&G-LG)(17:00·Xports)
-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19:10·Xports)